

광주시교육청, '빛고을혁신학교 초등 권역별 협의회'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5~18일 나흘 동안 '혁신학교의 가치를 추구한 학교별 실천 사례 나눔'을 주제로 '빛고을혁신학교 초등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빛고을혁신학교 초등 권역별 협의회'는 지난 7월28~30일 '원격수업에 대한 고민 공유와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했던 협의회 이후 활동으로 추진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각 초등학교에서는 1학기 원격수업을 되돌아보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피드백, 학습부진, 지식 중심교육, 정서 지원 등의 고민들에 대해 서로 공유했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상무초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생활 규칙 리듬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격수업에 적용했다.

온라인을 통해 9시에 출석확인하기, 아침체조하기, 공부 내용 안내하

지난 15~18일 '혁신학교 가치 추구한 학교별 실천사례 나눔' 주제

빛고을혁신학교 초등학교 교사들, 교육적 의미 찾는 원격수업 계획

기, 온라인 학습하기, 학습한 내용 정리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 자기주도적 학습의 또 다른 일환으로 '랜선 음악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한 가지 악기를 꾸준히 연습해 '랜선 음악회'를 통한 악기 공연으로 자신감을 향상하고 및 성취감을 높일 수 있었다.

광주봉주초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 간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해 e학습터 댓글, 카톡, 단톡방, 전화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두드림 캠프'를 진행했다.

5일 동안 진행된 '방학 중 두드림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평소 어려워했던 수업을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학기에도 긴급 돌봄과 연계된 보충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재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동산초는 협력을 통한 교육 공동체 모델을 운영해 원격수업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광주동산초 교사들은 '수학 디딤돌' 자료를 공동 개발해 학생들이 기본학습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 원격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집에서 운동·노래·요리·만들기 등 소소하지만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소확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확행'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금 혼자 집에 있지만 혼자만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느낌이 들어 힘

이 났다"고 말했다.

문흥초는 학생회 임원들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열화상 카메라 앞 포즈, 코로나 시대 비접촉식 놀이 등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흥초 한 교사는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처음 시도된 원격수업에 적응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2학기에는 혁신학교의 가치인 '함께하는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하는 학부모 및 학생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었다"며 "이번 빛고을혁신학교 초등 권역별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는 11월18일 '코로나19 시대, 다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다(가정)'를 주제로 '빛고을혁신학교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빛고을혁신학교 포럼"을 통해 시대적 전환기에 공동체가 혁신학교의 가치를 지키며 실천한 다양한 사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보성교육청, 다도 체험하며 '이색 경청올레'

조성초 교원들과 '다원'에서 보성특색교육 의견 소통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9월 16일, 보성 정광다원에서 조성초 교원 10명을 대상으로 다도 체험하며 '교육장 경청올레'를 가졌다.

이 자리는 보성교육지원청 특색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원과 함께하는 다향(茶鄉) 산책'으로 조성초 교원 10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하여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경청올레'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 밀착형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이 효과적 더 크다는 취지에서 교원들의 다도 체험장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번 경청올레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성 특색



교육 '3보향의 일 계승교육'의 그동안의 성과 나눔과 현안 문제, 보성의 문화와 역사를 심어주는데 교육청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영암교육청,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혁신교육지구 질적 도약 가속화 주목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9월 15일 영암청 대회의실에서, 9월 17일 삼호중앙초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혁신학교와 자율혁신학교 담당자들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으로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가속화 했다는데 주목을 받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혁신의 사례 공유, 자율혁신학교 컨설팅, 예산 활용 및 2학기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역량중심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학생자치,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공유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 받았다.

또한, 미집행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 교실 공간혁신 프로젝트 운영, 비대면 수업 교육자료 제작 및 교구 구입,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학 및 과학 놀이교구 구입 등의 방법을 찾았다.

이어 진행된 혁신교육지구 운영 협의에서는 자율혁신학교 하반기 컨설

팅 및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 프로젝트 진행 등 자율혁신학교가 전남혁신학교로 성장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영암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협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행연수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학교는 앎을 넘어 삶을 배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협의회에 참여한 영암여중 강은빈 선생님은 "자율혁신학교 담당으로 당초 계획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관내 학교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순천대 김현진 박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 선정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김현진 박사가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 동안 '호남지역 사찰 제영시 집성과 문화공간 연구'를 진행한다.

순천대 인문학술원 김현진 박사는 연구를 통해 호남지역 5대 사찰로 일컫는 순천의 선암사(仙巖寺)와

송광사(松廣寺), 구례의 화엄사(華嚴寺), 해남의 대흥사(大興寺), 장성의 백양사(白羊寺)를 중심으로, 사찰 및 부속 건물 등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남긴 한시, 비문, 상량문 등의 작품을 수집·선별·번역하여 사찰별 자료를 집성하고 나아가 사찰별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계획이다.

이러한 김현진 박사의 연구는 문화사적으로 한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호남지역 사찰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유불(儒佛) 교유와 사찰의 문화공간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3 대입 수시 면접, 여수시와 함께 '완벽 대비'

여수시가 지역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전형 면접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당은 다음 달 9일부터 24일까지 한글날과 토요일에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운영한다.

모집 인원은 총 80명으로 학생 1인당 2회, 90분간 개인별 지원 대

학·학과에 맞추어 면접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면접 지도도 함께 병행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